

# 원광대 72돌... 열정과 정성 모아

학생회관 대강당서 기념식... 교직원·외부인사 공로패 수여

김도중 총장 "미래지향적 연구 신성장 동력 발굴 아시아 중심대학 조성"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개교 72주년 기념식을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부터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15일 개교기념일에 하루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30년·20년 연공상 및 공로상 교육업적상을 비롯해 강의우수상, 학술공로상 등을 시상하고, 학생 표창과 함께 황신여 중국 영상사범대학 국제교류처장 김문자 전 교장, 이순영 전북자원봉사센터 대리, 최인희 이교종합건설

대표 노재환 전기인전공사 과장을 비롯한 외부인사 12명에게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각각 공로패가 전달됐다.

김도중 총장은 기념사에서 "원광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산학일체형 대학으로 혁신을 하면서 학생들의 창작(創職), 창업역량을 키워내고, 대학 4.0의 개념을 실천하는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역량을 시도하고 있다"며, "1학과-1기업-1특허, 융합전공, 삼합신사(三合紳士)교육, 플레이더트(Playder) 수업, 창업역량인증제, E-BOOK은문집 발간 등을 통해 학생들

이 더욱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다중직업(多重職業) 역량을 갖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시대를 읽어 변화하는 주인이 되고, 도덕적 잣대가 분명한 조직을 만들며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백 년을 꽃피울 아시아 중심대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말했다.

신명국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원광대는 지난 72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시련도 있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소성대(以小成大)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오늘 의 공든 탑을 이루었다"며, "이제부터는 대학을 위해 성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공도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그분들의 지나온 자취를 보존하고, 추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46년 유일학림(唯一學林)으로 시작해 1971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오늘에 이르고 있는 원광대는 융합과 변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직능 일체형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성이 살아나는 개별화 사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융합해 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의 미래, 시민들과 함께

정현을 예비후보, 희망펀드 '정(正, 淨, 情) 펀드' 출시

"새로운 희망익산의 '주주' 참여 길 열겠다" 강조

민주평화당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정 후보)는 최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클린선거를 선언하고 곧이어 '정(正, 淨, 情) 펀드'를 개설하여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



정 후보 이번 펀드 출시와 관련,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의미와 클린선거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익산시장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正, 淨, 情) 펀드'는 1구와 1만원, 10구와까지 가능하며, 모금액 1억원을 목표로 5월9일(수)에 개설되어 모금액 달성까지 진행된다. '정(正, 淨, 情) 펀드' 온라인 신청은 정현을 블로그 및 링크(<http://bit.ly/정현을펀드>)를 통해서 가능하며 정캠프(888-7888)에 가입문의 후 실명을 확인하여 '부자약서'에 동의 및 원리금 상환 계좌번호를 기록하면 된다.

펀드로 조성된 선거자금은 선거 후

선거비용 정산과 함께 8월 20일경 원금에 이자(연 3%)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 예정이다.

펀드는 기부금인 후원금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튿은 펀드자만, 금융상품이 아닌 금전 운용계약이며, 참여 약정 후 최종 입금을 해야 약정이 완료된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반환일 까지 기다려야 돌려받을 수 있다.

'정(正, 淨, 情)펀드'는 앞서 지난 주 '시민주 정(正, 淨, 情) 펀드'에 대한 지지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까지 쇄도했다고 전했다.

정(正, 淨, 情)펀드는 "익산의 미래를 익산시민과 함께 설계하려는 희망펀드 '정(正, 淨, 情) 펀드'를 출시하여 시민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한 구와 한 구와에 클린선거의 정신을 담아 시민에게만 빛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정현을의 약속이며, "필요한 선거자금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시민들과 함께 승리하여 시민을 새로운 희망익산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농작물 재배농가

### 재해보험 교육 실시

군산시는 이번 재해보험 농가교육은 예측이 불가능한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NH농협순해보험 농업보험본부 김영식 차장을 초빙해 보험 가입기간, 가입자격 및 가입품종, 개선된 보험 상품 안내, 보험금 지급 사례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채금석 농정과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피해복구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임정업 도지사 예비후보 "군산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민주평화당 임정업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정부 측에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임 후보와 박주현(국회의원) 군산경제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박종서 군산시장 예비후보, 서동수 나종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당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한국 자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적하며 전북 살리기 대책을 요구했다.

임정업 후보는 "정부가 지난 10월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협상 내내 나후지역인 군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을 살리는 방안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군산 조선소 폐쇄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해 놓고 취임 2개월 만에 폐쇄했다"며 "군산경제 재건방안 없는 원칙 없는



민주평화당 임정업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정부 측에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원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군산경제비상대책위원회의 박주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7월 군산 조선소 폐쇄를 수수방관했고 한국지

엠과 관련해서도 군산공장 폐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정부의 말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박종현 주무관 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2018년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시 세무과 박종현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급변하는 지방세제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도·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박 주무관은 이번 연찬회에서 지방

세 포인트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지방세 납부욕식 고취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방세에도 포인트제를 도입해 지방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 뒤 이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제증명 수수료, 공공시설 요금, 납세담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남중동 이리고 옆 도시계획도로 완공

익산시는 남중동 이리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구간(L= 24m, B= 8m)에 대하여 올해 5월 공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로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내대지로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및 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완료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간선도로간 연결통로가 되는 도로임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착한가게 300호점 탄생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남치과' 선정 김진석 원장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익산시 신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공동위원장 김복현, 박태신은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함께 추진중인 희망동행 나눔 릴레이 사업에서 영등동소재 강남치과(원장 김진석)를 익산시 300호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14일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강남치과를 착한가게 등록과 함께 현관을 전달했다.

강남치과는 2013년 개원 이래 매년 국내와 해외 저개발 국가의 차아간강을 위해 치과 용품을 수시 지원하는 등 평소에도 지역사회

회복사 및 이웃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숨은 나눔 천사로 일려진 병원이다.

김 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스함으로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복현 위원장은 "전해주시는 나눔은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 사업은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나눔으로 기부하면 모인 기부금으로 발굴 조사된 익산시 저소득 위기가정의 필요에 따라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GUNSAN CITY